평생교육 정책이야기

임 경 수 교수의
라이프롱 디자인

평생교육이야 태초에 사람들이 생겨나면서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다.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해 터득한 기술과 지식을 가르치고, 또 배웠을 것이다. 부모에게서 자식으로, 또 후대에 걸쳐 가르치며 인격을 길렀으니 평생교육이야말로 인간의 모든 여정이라 하겠다.

평생교육은 오래되어 묵은 것이지만 그것을 정책으로 만들기 시작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프랑스혁명이 발단이니까 그 해인 1789년을 기억해두어도 괜찮겠다. 모든 연령에 걸쳐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콩드세르의 교육개혁법안이 서막을 열었다.

1929년엔 드디어 익슬리(Yeaxlee)의 라이프롱 에듀케이션(Lifelong Education, 평생교육)이 출간되면서 평생교육의 이정표가 세워졌다. 생을 위한(for life), 생을 통한(through life), 전 생애에 걸친(throughout life) 교육이라는 3가지 표제가 여기서 각인되었다.

이를 풀어보면 평생교육정책은 ①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며 ②가정·직장·사회의 실생활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이며 ③나이와 성별, 사회적 지위에 상관 없이 일생 동안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발화한 평생교육은 유네스코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쌍벽을 이루며 정책 생산의 장이 된다. 먼저 유네스코는 1965년 랑그랑 보고서를 발표하여 평생교육의 국제적 통용을 이끌더니 1972년 포르 보고서에 이어 1996년 들로르 보고서를 공표하면서 평생교육정책을 선도하였다.

전 세계 대표급의 교육정책 수장(우리나라의 교육부 장관도 참여)들이 공동집필자로, 그 시기 유네스코 의장이었던 포르와 들로르가 각각 대표 집필자로 참여했다. 포르 보고서가 '존재를 배우기(Learning to be)'라면, 들로르 보고서는 '학습은 우리 안의 보물(Learning: The Treasure Within)'이라는 타이틀이다.

마침 1996년 1월 16일과 17일엔 OECD가 회원국의 장관급 교육위원회 회의를 열어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Lifelong Learning For All)' 보고서를 세상에 내놓은 후였으니 유네스코의 들로르 보고서는 OECD에 한 발 뒤처진 셈이다.

유네스코의 정책노선은 평생교육이 단순히 지식 전달을 넘어서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조화를 이루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 이에 비해 OECD는 평생학습을 통해 기술과 역량을 개발하여 경제적 경쟁력을 강화할 것을 꾀했고, 개인과 사회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걸 정책노선을 삼았다.

두 가지 정책노선은 고스란히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쳐 한국의 평생교육정책을 탄생시키는, 큰 역할을 했다. 1999년 우리나라는 사회교육법을 평생교육법으로 전부 개정하고, 2000년 밀레니엄시대에 들어서 곧바로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는 이념의 평생교육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그 동안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 7대 영역에 이르는 조직적인 교육활동이라는 정의도 확립하였다.

모두 다섯차례에 걸쳐 5개년의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이 추진되었고, 그 사이 평생교육정책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와 평생교육바우처에서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와 노인평생교육시설까지 확대되었다.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교수·성인학습지원센터장

STO 시장, 신속한 법제화 필요

기자 수첩
원 관 희
〈자본시장부〉

토큰증권발행(STO) 시장 활성화가 수요자들의 기대와 달리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에 발목이 잡히면서 지지부진한 양상이다. 주요 글로벌시장에서는 STO와 관련된 제도적 장치가 명확하게 이뤄져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지키면서 급성장 중이다.

옆 나라 일본만 놓고 봐도 확연한 차이를 알 수 있다. 일본의 STO 시장 규모는 나날이 커지고 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의 토큰증권 발행액이 976억엔으로 2022년 166억엔 대비 6배 이상 증가했다. 미공개 사모로 발행된 토큰증권을 포함한 시장 규모는 1000억엔 이상으로 추정된다. 일본은 STO 발행에 주식과 동등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2020년 5월 개정된 금융상품거래법에서 금융기관의 토큰증권발행이 허용된 이후 토큰증권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평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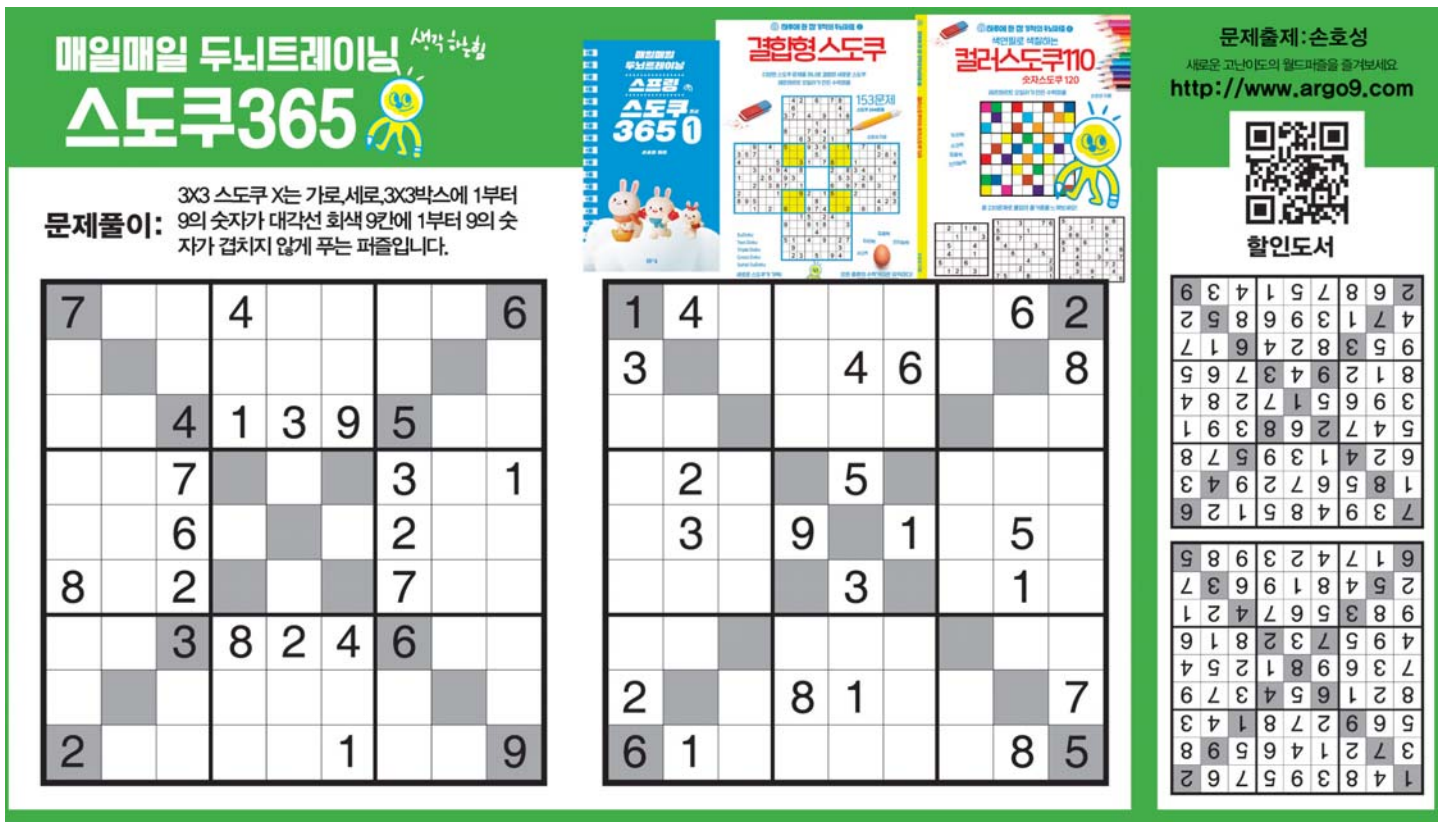
일본 토큰증권시장의 성장은 부동산 토큰증권이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발행된 부동산 토큰증권은 823억엔으로 일본 토큰증권 시장의 85%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보다 1년여 늦게 부동산 STO를 출시했지만 장내 거래소 개설 등 관련 제도가 잘 갖춰져 있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한 것이다.

일본은 정부가 시장 확대를 견인한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STO 사업을 키울 수 있는 제도가 정비되지 않고 있다. 연구기관에선 국내 토큰증권 시장 규모가 2030년 367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등 토큰증권 시장이 유망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음에도 제도화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속도를 냈으나 결국 법안 마련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관련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22대 국회가 개원했음에도 STO 제도와 관련된 연속성 있는 법안 마련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정치 놀음에 빠져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 시대는 속도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번 뒤처지면 따라잡기가 힘든 만큼 글로벌 STO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 당국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

/wkh@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7월 16일 (음 6월 11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모난 돌이 정 맞는 법이니 오늘은 자중. **48년생** 끝없이 자식에게 의존 말고 길을 개척하라. **60년생** 비빌 언덕이 있었으면 좋겠다. **72년생** 시작해라 모든 일은 마음먹기 나름. **84년생** 꿩대신닭도 있으니 기회는 늘 있게 마련이다.

37년생 친구와 한잔 술이 생각나는 날이다. **49년생** 자기중심으로만 생각하면 조화가 깨진다. **61년생** 세금에 대해 모르는 일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자. **73년생** 슬픔이 지나가고 뜻밖의 기쁜 일이. **85년생** 문서가 발동하니 매매도 생각해볼 것.

38년생 오늘은 기다리던 소식이 온다. **50년생** 마른 논에 물들어 오듯이 문제가 일시에 해결. **62년생** 독단적인 일 처리로 타인의 원망을 듣는다. **74년생** 레일을 벗어나지 말고 정도를 걷는 것이. **86년생** 버틸 수 있다면 아직 희망은 있는 것.

39년생 돈이 없으면 비교당하기 마련. **51년생** 사방으로 운이 열렸으니 미뤄뒀던 일을 마무리. **63년생**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법. **75년생** 내가 먼저 믿어야 상대도 설득 할 수 있다. **87년생** 이력서를 냈으니 편안하게 하고 기다려라.

40년생 흥망성쇠가 있으니 평소에 베풀자. **52년생** 옛사람을 너무 그리워하면 사람 만나기가 어렵다. **64년생** 오늘은 내일의 결과를 위해 조금 노력. **76년생** 상쾌한 바람이 불어오니 일도 풀린다. **88년생** 두드려도 열리지 않으면 애쓰지 마라.

41년생 무시하는 자식에게 의사 표현을 해라. **53년생** 오늘은 불만이 있어도 속으로만 생각. **65년생** 돌다리도 두드리고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 **77년생** 영업목표 달성을 위해 현실에 대처하라. **89년생** 좋은 습관이 주는 편안함을 극복하라.

42년생 원하던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으나 복병을 조심. **54년생** 자식 때문에 근심이 많다. **66년생** 결론은 내 뜻대로 밀고 나간다. **78년생** 흘러간 세월을 그리워 말고 내일을 준비할 시기. **90년생** 외로움보다 참기 힘든 건 무엇보다 그리움.

43년생 오후에 교통사고 유의. **55년생** 놓친 고기를 안타까워 말고 내 것을 소중히. **67년생**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 즐거운 하루. **79년생** 전진과 후진은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다 기쁜 마음으로. **91년생** 수호신이 보호하니 자긍심을 갖도록.

44년생 민망한 일을 당해도 당당하게 맞서라. **46년생** 숨은 실력을 자랑하고 남들도 알아주는 기회가 온다. **68년생** 결심을 했으면 행동으로 옮겨라. **80년생** 돈거래는 늘 초심을 생각하고 노력하자. **92년생**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45년생 걱정이 해소되고 마음이 편안하다. **57년생** 새로운 인연을 만나 새로운 기회가 생긴다. **69년생** 자신을 등불로 삼아 앞으로 나가라. **81년생** 어진 친구를 만나 힘찬 지혜를 얻는다. **93년생** 마음을 굳게 먹고 이직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

46년생 하늘에서 돈이 쏟아져도 만족을 모른다. **58년생** 지치기 쉬운 날이니 건강에 신경. **70년생** 관심 두지 말라 오히려 독이 된다. **82년생** 학문을 쌓으면 어떤 역량을 발휘할지 모르는 길함이 온다. **94년생** 눈앞의 실속을 챙기다 이익을 놓친다.

47년생 남의 잔치에 감 놔라 배 놔라 할 것 있겠는가. **59년생** 남에게 잘하라고 하지 말 것. **71년생** 잔꾀로 상대에게 희망 고문을 하지 마라. **83년생** 바람이 불어오니 마음이 허전하다. **95년생** 학식이 있어도 낮 놓고 기역 자를 모를 수가 있음이다.

김상회의 四季

인수(印綬)의 지혜

사주에서 가문家門은 인수印綬의 역할에 있다. 인수는 윗대이므로 조상 가문이다. 인수가 잘 짜여 있으면 가문이 좋다. 재물로는 주택이며 없으면 집 없는 천사 즉 내 집이 없다. 어머니요 선생이며 여자 사주에 인수가 별 볼 일 없으면 여자 집안이 시어머니 될 분에게 안 찬다. 필자가 작은 사찰이라도 운영을 하니 스님들 왕래가 계속 있는데 사주 운세를 항상 물어온다. 절을 인수하고자 할 때 진중하지만 스님 사주에 인수가 없으면 주지 스님이 힘들다. 내 절이 없다. 인수는 시끄러운 것을 싫어한다. 인수가 없으면 덕이 없고 안일 무사하다.

평일 어느날 어느 젊은 남자가 상담을 청했다.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일하고 남은 시간은 자유롭게 사용하고 돈은 필요한 만큼 번다는데 회사에 직장인이라면 귀가 솔깃한 얘기다. 직종이 프리랜서다. 그러면서 더욱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하다며 방문을 했다. 사주의 특성을 짚어보면 인수가 없으니 무엇보다 직장생활에 필수적인 규칙이나 인간관계를 못견뎌 한다. 직장은 어느 곳이나 관료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런 제약을 싫어한다. 집 없는 천사이듯 자유로운 영혼으로 필연적 프리랜서 형태로 일을 한다. 식신이나 상관 사주가 대다수 틀에 박힌 생활을 싫어한다. 인플루언서나 유튜버로 활동하기에 적합한 사주이기도 하다. 특정한 조직에 묶이지 않고 사람 스트레스도 덜 받고 시간을 자유로이 쓸 수 있다는 점을 매력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좋은 것만 있는 건 없다. 양이 있으면 음이 있고 음이 있으면 양이 있는 게 세상 이치다. 인수가 있어야만 사는 데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장단점이 있다. 어떤 방식으로 일할 때 더 만족스럽고 더 잘할 수 있는지 생각하고 실행하는 게 사주팔자에서 알려주는 인생의 지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 행·편 집 인	이 장 규	편집국장	김 승 중
인 쇄 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473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577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